

# SK, 석유 개발로 수익성 만회...

## 석유사업 2년 연속 영업이익 5000억원 돌파 ... 지분투자 운영 한계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이 새로운 <영업실적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석유개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부문은 2012년 영업이익이 5285억원을 기록해 2011년 575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5000억원 돌파의 성과를 거두었다. SK이노베이션 전체 영업이익 1조6911억원의 31%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2년 정유 시장의 전반적인 영업실적 부진 속에 전체 영업이익이 2011년에 비해 무려 43% 급감했으나 석유개발 사업은 8%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 영업이익은 2007년 1763억원, 2008년 2944억원, 2009년 3351억원, 2010년 4155억원 등으로 매년 수직상승했다.

2012년 석유개발 영업이익률도 54%에 달해 전체 영업이익률 2.3%의 2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현재 16개국에서 26개 석유광구 개발과 4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한 원유만 우리나라가 약 8개월 사용할 수 있는 5억4500만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석유사업이 사내 최대 고수익 사업으로 자리를 굳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1980년대 석유개발에 뛰어든 이래 30년 만에 국내 최대로 성장했으나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으로 석유광구를 개발·운영하기보다는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뽑아내는 사업구조도 한계로 지적된다.

SK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1월 석유개발 사업을 CIC(Company in Company)로 격상시키고 질적 변신을 꾀하고 있다.

방안으로 2011년 7월 브라질 석유광구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24억달러의 투자처를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브라질 석유광구는 투자금 7억50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매각이 성사되면서 국내 민간기업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록됐다.

SK는 석유개발 관련 기술·운영 노하우가 많거나 유망 생산광구를 가진 해외기업 인수를 최우선에 두고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에 관심을 쏟고 있다.

SK 관계자는 “지분투자 중심의 자원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석유광구를 독자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투자건의 최대 목적”이라며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3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익 창출 노하우를 쌓은 SK이노베이션이 단독 광구개발·운영 기술을 확보하면 석유개발 사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석유개발을 진두지휘한 최태원 회장의 부재는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SK가 추진한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이루어낸 것이어서 그 존재감은 절대적”이라며 “최태원 회장 부재라는 비상 상황을 맞은 2013년이 SK 석유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